

“친환경 농수산물 직접 보고 홍보해주세요”

전남도 주부 파워블로거 초청 산지 투어
생산·유통 현황 알리고 ‘신뢰 쌓기’ 주력

전남도가 파워블로거를 초청해 친환경 농산물 산지 투어를 통해 전남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신뢰 쌓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모집한 ‘남도장터 파워블로거(인기 누리방지기)’ 50명 중 40명을 대상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와 고흥 녹동수협 등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과 관광지를 둘러보는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서 파워블로거들은 나주의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 및

공급과정을 돌아보고 고흥 거문대교와 수산물가공센터 등을 견학했다.

또한 고흥 녹동수협 수산물 위판장 견학, 흥양에 있는 첨단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수확체험, 농업의 유래가 깃든 영암농업박물관 관람을 했다.

이번 산지체험에 참가한 파워블로거는 지난 4월 ‘남도장터 농수특산물이 최고! 우리 맛보고 이야기하자!’라는 주제로 누리방지기(블로거)를 모집한 결과 202명이 응모해 방송자와 팔림벗(팔로우)을 기준으로 업선한 주부들이다. 전남도는 이를 파워블로

거에게 매월 3만원 상당의 남도장터 우수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의 평가 등 활동상황을 자신의 누리방(블로그)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에 올려 방문자에게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도내 생산현장 산지체험을 추진한 것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현황을 좀 더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체험행사에 참가한 홍란 주부는 “남도장터에서 구매해 먹어본 제품을 산지에서 직접 생산과정을 확인하니 더욱 신뢰가 가고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다현 주부도 “공기 좋고 인심 좋

은 전남지역을 주변에 사는 주부들과 함께 체험함으로써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주변 이웃들이 관심하고 남도장터 제품을 구매하도록 알리겠다”고 밝혔다.

명창한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5회에 걸쳐 서울·경기교유청 급식 관계자와 유통업체, 서울초교 교장단과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실시해 전남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판매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에도 전남도와 강동구가 공동 운영하는 강동구 직거래장터 상인과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녹색의 땅 전남’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모내기철 일손 도와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와 영암·무안·함평·영광지사 직원 100여명은 지난 15일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에서 모내기와 보식작업 등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전남본부는 옥정을 비롯한 관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구를 대상으로 영농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순천박람회 조직위원장 박준영·이만의… 이사장엔 조충훈



박준영 지사 이만의 前장관 조충훈 이사장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5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5차 이사회를 열고 조충훈 시장을 이사장으로, 박준영 도지사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을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 지사와 이 전 장관은 19일 열리는 제4차 총회에서 공동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현 송영수(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위원장을 포함,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이사장은 정원박람회 실무를 총괄하고, 3인의 공동 위원장은 국·도비

획보, 국제 정원박람회 대상으로 먹는 샐러드(생수)이나 짐수기 물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제품을 산지에서 직접 생산과정을 확인하니 더욱 신뢰가 가고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충훈 시장은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원박람회를 정부,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준비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이사장은 정원박람회 실무를 총괄하고, 3인의 공동 위원장은 국·도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K-water 전남본부 ‘수돗물 음용아파트’ 모집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는 목포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먹는 샐러드(생수)이나 짐수기 물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제품을 산지에서 직접 생산과정을 확인하니 더욱 신뢰가 가고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충훈 시장은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원박람회를 정부,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신청 K-water 전남운영처 (062-370-3264) /송기동기자 song@

전남도 7개 시·군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전남도는 오는 10월 12일까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두 차례의 수요조사를 통해 법을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부족한 신안·담양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군 순회 방문상담’과 함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상담은 도내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상담 접수는 해당 시·군 법무담당부서에서 받는다. 상담 절차는 내실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관(변호사)에게 사전 제공된다.

이어 식후 행사를 드립빌 마

을로 이동해 마을 표지석 제작식과 함께 입주 세대를 돌려볼 예정이며, 박수방 선생의 베비(白璧) 참배를 끝으로 행사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뉴타운에 입주를 마친 농업인들의 화합과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한 입주민 자체 한마음 행사도 예정돼 있다.

장성군은 21일 김환식 국무총리

와 이상길 농수산식품부 차관, 박

준영 전남도지사, 김양수 장성군수,

인근 지역체장 등 주요 인사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뉴타

운 ‘장성드림빌’ 입주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김양수 장성군수

의 경과보고와 박준영 도지사의

환영사, 이낙연 국회의원 축사, 김

환식 국무총리의 치사 순으로 진

행된다.

지난 2010년 초 사업계획 승인

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11년 4월에 임대 및

분양 입주계약을 모두 끝마쳤다.

군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새내기 영농체험 등 다양한 귀농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장성 드림빌’ 입주민 생활민원 지원 TF팀을 구성, 뉴타운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귀농 만족도를 높였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해 도시 뜻지 않은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홍호기자 yongho@

농어촌 뉴타운 1호 ‘장성드림빌’ 21일 입주식

200호 분양 완료… 입주민 한마음 행사도

장성군이 전국 5개 농·어촌 뉴타운 시범지구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분양과 입주를 마쳐 귀농·귀촌 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성군은 21일 김환식 국무총리와 이상길 농수산식품부 차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양수 장성군수, 인근 지역체장 등 주요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뉴타운 ‘장성드림빌’ 입주식을 갖는다.

장성 드림빌은 귀농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드림(Dream)

과 마을(Village)을 뜻하는 ‘빌’의 합성어로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삼서면 유령리 부지 16만881㎡에 200호가 조성됐다.

지난 2010년 초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11년 4월에 임대 및

공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aT는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및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농학·식품계열 지역대학과의 MOU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대(5월 2일) ▲충남대(6월 8일) ▲강원대(6월 12일)와 이따금 MOU를 체결했다.

성장현 광주·전남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T-순천대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업무협약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해외지사 소재지 주요시설 견학 지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순천대학 재학생에게는 aT의 국내외 인턴 프로그램 채용 및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aT상 수여, aT 지사 직원의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 농촌 봉사활동 실시 등 사회

▲aT 해외지사 소재지 주요시설 견학 지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순천대학 재학생에게는 aT의 국

내외 인턴 프로그램 채용 및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aT상 수여, aT 지사 직원의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T는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및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농학·식품계열 지역대학과의 MOU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대(5월 2일) ▲충남대(6월 8일) ▲강원대(6월 12일)와 이따금 MOU를 체결했다.

성장현 광주·전남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T-순천대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업무협약

★ 특전사항 ★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해외지사 소재지 주요시설 견학 지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순천대학 재학생에게는 aT의 국

내외 인턴 프로그램 채용 및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aT상 수여, aT 지사 직원의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T는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및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농학·식품계열 지역대학과의 MOU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대(5월 2일) ▲충남대(6월 8일) ▲강원대(6월 12일)와 이따금 MOU를 체결했다.

성장현 광주·전남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T-순천대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업무협약

★ 특전사항 ★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해외지사 소재지 주요시설 견학 지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순천대학 재학생에게는 aT의 국

내외 인턴 프로그램 채용 및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aT상 수여, aT 지사 직원의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T는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및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농학·식품계열 지역대학과의 MOU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대(5월 2일) ▲충남대(6월 8일) ▲강원대(6월 12일)와 이따금 MOU를 체결했다.

성장현 광주·전남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T-순천대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업무협약

★ 특전사항 ★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해외지사 소재지 주요시설 견학 지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